

활기있고
快適한
漁港漁村
建設

會訓
● ● ●
創奉誠
意仕實

漁港消息

발행경 孫井植 特種 韓國漁港協會
편집인 金在克 서울특별시종로구원남동103번지
인쇄인 金在克 TEL. 3673-2851~3
ISSN 1227-7053 568-6651~2
등록일: 1988년 2월 19일 FAX. 568-6653
e-mail: kfp8769@chollian.net

(月刊) 第140號

THE FISHING PORT NEWS

1999年 8月 25日 (水曜日) [1]

“전국 어항 일제실태조사와 중장기 종합계획수립 추진 등 정책전환을”

한국어항협회 '어항정책의 발전방향' 보고

한국어항협회는 최근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전국어항 일제조사 및 지정어항 수의 단계적 확대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어항정책의 획기적인 발전방향을 해양수산부에 보고했다.

한국어항협회가 작성한 어항정책의 발전방향은 지난 7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서 그 동안 협회가 주창해 왔던 내용들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어항정책의 발전방향에는 종래 어항정책에 대한 전환의 필요성과 평가 및 미래지향적인 어항의 구상과 어항정책의 발전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항정책 전환의 필요성에 서는 국내외 수산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 차원 △방파제 물양장 등 기본시설 위주로 개발 △미분적 분산투자로 장기계속공사 등 종래의 어항정책을 △국민 어류단백질의 안정적 공급 기지화 △제한수역의 고도 이용 및 효율적 관리 △활력있고 쾌적한 어촌 정주권 조성 및 연계한 일체 개발 △균형있는 국토의 개발 보전과 다기능 종합어항 개발 △국민의 친수공간 마련 △수산 인프라 구축에 투자집중 전략 등의 관점으로 전환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어항정책의 평가는 △어항

에 대한 일반적 인식 부족 △정책·기술수준 한계 및 연구기반 취약 △체계적인 중장기 종합계획의 불비 △면밀한 어항조사 미비와 지정어항 수의 부족 △어항개발 투자의 과소 및 공사 장기화 △다기능 종합어항시설 전무 △어항개발·관리상의 민자 유치 부진 △어항시설 관리의 부재현상 △어항관계 법령 및 제도의 미비 등으로 요약했다.

이에 따라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 쾌적하고 활력있는 어항어촌 건설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항에 대한 일반적 인식 제고 △정책·기술수준 향상 및 연구기반

구축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전국어항 일

새롭게 열리는 2천년대를 앞두고 각계각층에서 지난 한세기를 재조명하고, 다가올 한세기를 가능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어항산업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나는 한세기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한세기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어항정책사를 더듬어 본다면 대략 5단계로 나뉠 수 있다. 우선 1950년대까지는 어항정책 부재기로, 1960년대는 어항정책 여명기, 1970년대는 어항정책 도약기, 1980년대에는 어항정책 본격 추진기, 1990년대는 어항정책 발전기가 그것이다.

그렇다면 2천년대의 어항정책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아마도 그것은 어항정책의 완성기, 혹은 어항정책의 완성이 정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아직도 어항정책에 대한 의식은 구시대적 고정 관념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몇가지 예를 들자면 대부분의 어항정책이 어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 차원이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항개발이 방파제, 물양장 등 기본시설 위주로 국한돼 있는데다, 미분적 분산투자로 장기 계속 공사가 이루어져 완공항의 수가 극히 적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이제 세상은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산환경 역시 변화를 강요받고 있다. 수산물의 수요 증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다 축소지향적 어업정비로 재편, 탈어촌 현상의 가속화, 해양성 여가활동의 증가, 그리고 환경친화적 어항개발 요구가 점점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어항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그 방향은 대체로 다음 몇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국민 어류단백질의 안정적 공급 기지화, 둘째, 제한수역의 고도이용 및 효율적 관리, 셋째, 활력있고 쾌적한 어촌정주권 조성 및 연계한 일체 개발, 넷째, 균형있는 국토의 개발 보전과 다기능 종합어항 개발, 다섯째, 국민의 친수공간 마련,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산 인프라 구축에 투자 집중 전략 등이 그것이다.

최근 협회가 이에 관한 종합적인 어항정책 발전방향을 작성, 관련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제조사 및 지정어항 수의 단계적 확대 △다기능 종합어항으로의 개발 △어항개발 투자의 확대 및 효율성 제고 △어항시설관리 전담기구의 설립 △해역별 모델어항사업 실시 △어항구역의 환경 개선 △어항관계 법령 및 제도 보완 등의 분야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2면에 '어항정책의 발전방향' 게재)

써 그 내용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이 자료의 최종 목표가 단순한 수산업이나 어항산업이라는 개별산업 이기주의가 아닌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우선 가장 눈에 띈다.

다시 말해서 수산업에 종사하는 일부 어업인이나 어항산업에 종사하는 관련업계의 이익 대변이 아닌 어항을 통해 전 국민이 골고루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단연 돋보인다는 말이다. 한마디로 기왕에 어항정책에 관한 그림을 그릴 바엔 미래지향적인 어항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자는 의도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어항정책 발전방향의 각론은 크게 5가지로 나뉘어 진다. 첫째, 어항에 대한 일반적 인식 제고이다. 즉 어항이 단순한 어업생산 기반시설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다기능 종합어항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정책 기술수준 향상 및 연구기반 구축이다. 어항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을 육성 발전시켜 산·학·관 협동체제를 구축해 선진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다.

셋째,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이다. 과거에도 이에 관한 계획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으로 기존 어항의 정비 확충을 포함, 체계있고 종합적인 어항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넷째, 전국어항 일제조사 및 지정 어항수의 단계적 확대이다. 어항산업이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전국어항에 대한 실태 조사가 선결과제이므로 어항사에 새로운 획을 그을 일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놓고 지정어항의 확대는 물론 계획상의 완공이 아닌 어항다운 어항건설을 위해 과감한 개발을 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기능 종합어항으로의 개발이다. 어항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는 만큼 다목적적인 어항의 개발로 새로운 수요의 증대에 부응하자는 것이다.

물론 어항협회의 이러한 건의가 최상이고 최선이라 할 수는 없으나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정책이 입안될 때는 몇몇 관련부서의 책상머리에서 결정되는 일이 왕왕 있어 왔다.

1백년 뒤를 내다본다면 전문단체와 토론을 벌이며 솔직히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수용하는 것이 2천년대 성숙한 정부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어항정책을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하자

21세기 체험관광어촌으로 개발

제주 고산마을 등 5개소 선정

해양수산부는 어업활동의 장인 어촌을 어로체험, 양식 체험, 갯벌 체험, 스킨스쿠버, 바다낚시 등 '체험관광어촌'으로 개발하여 21세기 관광어촌으로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시·도로부터 추천받은 15개 마을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도 북제주군 고산마을 등 5개 마을을 어촌체험

관광마을로 선정 발표했다. 이 어촌체험관광마을은 어촌관광산업화를 위한 모델개발과 새로운 소득원 개발 차원에서 어촌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환경 인문자원 산업 생산과 연계하여 도시인이 새로운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토착 문화적, 환경친화적 관광 마을로 조성하는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5개 마을에 대하여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개발지원팀이 현지를 방문, 독창성이 있는 체험관광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고 1개 마을당 20억원을 투자하여 체험어장, 진입도로, 민박시설, 주차장, 휴게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관광어촌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총 25개 마을을 선정,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어촌관광체험마을 지정 5개소

| 번호 | 체험유형 | 체험내용 | 마을명 |
|----|------|-----------------|------------------|
| 1 | 바다낚시 | 한치, 갈치, 줄삼치트롤링 | 제주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마을 |
| 2 | 양식장 | 바지락, 맛, 굴, 김양식장 | 충남 서천군 마서면 송서마을 |
| 3 | 갯벌 | 어패류채취, 갯벌생태 | 경기 안산시 선감 18통마을 |
| 4 | 조업 | 정치망, 양식장 | 강원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마을 |
| 5 | 레포츠 | 스킨스쿠버, 낚시 | 경북 영덕군 영해면 대진마을 |

연도별 투자계획 (금액단위 : 억원)

| 구분 | 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
| 개소 | 25 | 5 | 10(5) | 10(5) | 10(5) | 10(5) | (5) |
| 금액 | 500 | 50 | 100 | 100 | 100 | 100 | 50 |

* ()안은 계속사업임

해양수산분야 수해복구비 긴급 지원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31일부터 중부지방에 내린 기습적인 집중호우와 제7호 태풍 '올가'의 내습으로 인한 해양수산시설 피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우선 재해대책 예비비 30억원

을 피해가 많이 발생한 전남 경기 경북 경남도에 배정하여 긴급 복구토록 조치했다. 이번 호우와 태풍으로 인명피해 6명, 선박 917척, 수산증양시설 및 어항시설 등에 피해가 발생, 피해액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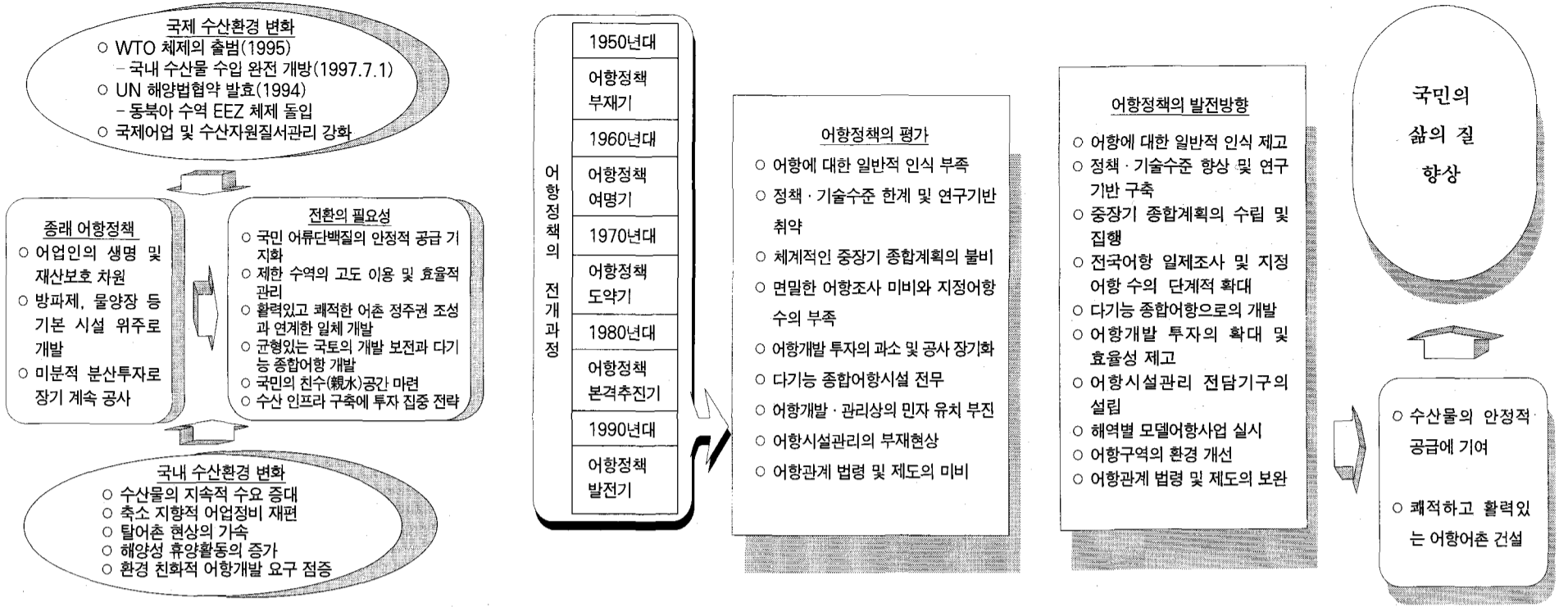
약 340억원으로 잠정 집계되었으며, 현재 중앙재해대책본부 중앙합동피해조사단이 정확한 피해 상황을 집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는 긴급복구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에 대해서도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어항정책 전환의 필요성

어항정책의 전개과정 및 평가

어항정책의 발전방향



어항정책의 발전방향

1. 미래지향적인 어항의 구상

매력있고 활력있는 어업의 지원

- 안전하고 사용하기 쉬운 어항개발
 - 황천시에도 안전하게 계류할 수 있는 어항
 - 안전하고 편리하며 생력화가 가능한 어항
 - 여성, 고령자도 일하기 쉬운 환경 창출
- 지역특성을 살린 어항기능의 강화
 - 어항의 역할 분담 충실
 - 어항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도로, 주차장 등의 개발
- 자원관리형 어업지원을 위한 어항개발
 - 연안어장이나 증·양식 어업을 위한 어항개발
 - 수산관련 정보 중심지로서의 어항개발
- 풍요로운 식생활을 지원하는 어항개발
 - 활어유통 등 새로운 유통형태에 대응한 시설·용지의 확보
 - 대형 수산가공원료 운반선의 입·출항이 가능한 어항

정취 넘치는 환경의 창출

- 지역의 특성을 살린 생활공간의 실현
 - 녹지, 광장 등 공공용지의 정비
 - 방풍·방사시설, 전라방지책 등 생활취로의 안전 확보
 - 문화적, 역사적 유산의 보전 활용
 - 도로정비 등에 의한 주변 어항어촌과의 유기적 연계
- 환경과 조화된 어항 개발
 - 어패류 등 수산생물 생산환경에 대한 배려
 - 어항개발에 있어서의 주변 환경과의 조화

도·농·어간 교류공간 조성

- 어항어촌의 다면성을 살린 여가 교류공간의 실현
 - 해양성 레크리에이션 기반 조성
 - 교류, 휴식, 이벤트의 장으로 개발
- 활력있는 지역조성의 핵으로서의 어항 개발
 - 지역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및 도시와 어촌교류의 기반 구축
 - 어업을 주체로 하면서 가공업, 관광산업 등 바다와 연계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장으로서의 조건 정비

2. 어항정책의 발전방향

어항에 대한 일반적 인식 제고

- 국민적 어항으로의 인식 제고
 - 최근 들어 어항은 어업생산 기반시설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유통·가공기지, 어촌 정주권 조성, 도시지역 주민들의 휴양·관광·레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다목적 공공장소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변모
 - 이러한 다기능 종합어항의 개발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어항에 대한 일반적 인식의 제고
- 새로운 어항의 개념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 어항관련 이벤트의 개최 및 홍보프로그램의 개발

정책·기술수준 향상 및 연구기반 구축

- 어항 전문연구기관 설립
 - 해양수산부 산하의 어항 전문연구기관 설립
- 민간단체의 육성 발전
 - 국내 유일한 어항 전문기술단체인 한국어항협회의 기능을 강화시켜 명실상부한 어항 전문연구단체로 육성 발전
- 관·산·학 협동연구체제의 구축
 - 관·산·학 협동연구체제의 구축으로 기술력 향상
- 선진 외국과의 기술교류 강화
 - 한·일 어항기술교류회의의 강화 및 기술교류회의의 다원화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

- 어항·어촌 통합형의 종합개발계획 정립
 - 어항은 어촌의 핵심시설로서 분리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
 - 현재 중앙정부의 조직도 어항과 어촌을 통합하여 운용
 - 어항·어촌 통합형의 종합개발계획을 정립, 분리집행에 따른 부조화와 제반 낭비요인 제거
- 항별 집중투자 개발계획 확립
 - 현재와 같은 포괄적인 개발계획에 따른 지역안배 차원의 분산 투자는 공사의 장기화는 물론 어항의 이용도를 저하
 - 어항은 완공시에 비로소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항별 집중투자 개발계획을 확립, 분산 투자로 인한 비효율성 제거
- 계획상 완공항에 대한 일제 정비계획 수립 추진

립 추진

- 기본시설 위주의 개발로 계획상 완공에 불과한 121개 완공항에 대한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다기능 종합어항으로의 정비 추진

전국어항 일제조사 및 지정어항 수의 단계적 확대

- 전국어항 일제조사 실시
 - 지정항과 비지정항을 포함한 전국 2,262개 어항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 실시
- 지정어항 수 411개 → 640개로 확대
 - 현재 지정어항 수 411개를 항간거리 18km(현재 28km) 수준인 640개로 단계적으로 확대
- 신규 지정어항의 과감한 개발
 - 신규 지정어항에 대해서는 투자계획에 반영, 과감하게 개발

다기능 종합어항으로의 개발

- 다기능 종합어항으로의 개발
 - 어항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새로운 수요의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기능 종합어항으로 개발
- 기본시설 위주의 개발방식에서 탈피
 - 현재와 같은 기본시설 위주의 개발방식은 어항의 이용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욕구 충족 미흡
 - 기능시설, 문화·복지시설, 관광·휴게 시설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종합어항으로 개발

어항개발 투자의 확대 및 효율성 제고

- 어항개발 투자의 확대
 - 미래지향적인 종합어항 개발을 위해서는 획기적으로 투자 확대
 - 수산예산의 50%('99년 기준 4,809억 원) 이상으로 투자 확대
 -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60% 수준으로 향상
- 투자의 효율성 제고
 - 수산분야의 사회간접자본인 어항시설에 투자를 집중, 효율성 제고
 - 정부의 재정이 미치지 못하는 개발부문에는 민자 적극 유치
 - 문화·관광지로서의 어항 홍보 강화
 - 개발자금 장기저리 융자, 참여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어항부지의 무상 임대 등 유인정책 마련

어항시설관리 전담기구의 설립

- 어항시설관리 전담기구 설립
 - 어항의 시설관리는 상당한 전문성과 일관성이 요구되므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같이 어항시설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가칭 '어항관리공단' 설립 추진
- 한국어항협회에 관리업무 위임
 - 전담기구 설립이전까지는 우선 어항 전문기술단체인 한국어항협회의 예산과 조직을 보강, 관리업무를 위임

해역별 모델어항사업 실시

- 모델어항 지정
 - 미래지향적인 어항개발사업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모델어항'을 전국 각지에 지정
 - 시범사업 실시로 미래어항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
- 우선적으로 동·서·남해 해역별로 적지 선정, 개발
 - 동해안의 경우 속초시 대포항을 모델 어항사업으로 추진
 - 서·남해안에도 1개소씩 이 같은 모델 어항 신속 개발

어항구역의 환경 개선

- 어항 청소업무의 확대
 - 어항청소선의 확충
 - 7척(15톤) → 10척(15톤 7척, 40톤 3척)
 - 어항청소 인력 및 예산의 증대
- 환경보호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홍보
 - 어항환경 실태조사 실시
 - 어항정화시설의 설치
 - 어항환경 전문인력의 육성

어항관계 법령 및 제도 보완

- 타 관계법의 적용 배제
 - 어항시설의 설치에 있어 어항법이 타 관계법의 적용을 배제시켜 이에 우선하도록 제도 보완
- 특별법의 제정
 - 어항개발에 제약이 되는 관계법들을 통합한 가칭 '어항어촌종합개발촉진법' 제정
- 전담 독립기구의 설립
 - 해양수산부 내에 어항어촌 전담국 신설
 - 산하 어항사업 집행 및 관리업무 전담 지방특수전문조직(어항사무소) 독립

동 정

해양수산부 출범 3주년 기념행사 개최

▲정상천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6일 해양수산부 출범 3주년 기념식을 주재, 이어 해양수산부 청사앞 광장에서 불우 어선원유자녀를 돕기 위한 수산물바자회를 개최.

▲손정식 한국어합협회장은 8월6일 해양수산부 출범 3주년 기념식에 참석, 7일에는 한국경제신문사에 수재민돕기 성금을 전달, 13일에는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 참석, 18일에는 경희대학교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학술세미나에 참석.

참석, 27일에는 한국능률협회 조찬세미나에 참석.

▲황금주 동광건설주식회사 사장은 8월11일 무안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식에 참석.

▲정윤삼 대지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8월5일 경기도 매송IC공사현장에 출장, 6일에는 진도공사현장에 출장, 18일에는 제주도 서귀포간 도로확장공사현장에 출장.

▲장정언 정한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8월17일 백주일손 영령 합동위령제에 참석, 19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

섭씨(Seoul Realty 대표) ▲ 정봉채씨 ▲회사묵씨

외 비 납 부

<대단히 감사합니다>

■단체
▲금광기업주식회사(회장 고제철)

■개인
▲김광섭씨(속초시청 증식계장)
▲김동원씨(주식회사동아상호신용금고 회장)
▲김종희씨(전 한국수산신보



■ 손정식 한국어합협회장은 8월6일 해양수산부 대회 의실에서 개최된 해양수산부 출범 3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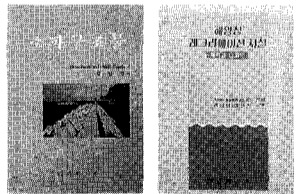
회의 제9기 출범식에서 제주도 부의장에 임명.

▲송재성 주식회사사성호종합건설 회장은 8월8일 여수공사현장에 출장.

출판실장) ▲정해택씨(전 국립수산진흥원 기획과장)

신 간 안 내

▲김남형씨(제주대학교 해양토목공학과 교수)는 최근 '해양성레크리에이션시설'과 '소파구조물'을 번역 발간했다. 특히 해양성레크리에이션시설에는 마리아나의 계획, 해빈공원의 계획, 해수욕장의 계획, 보딩거점의 계획, 바다낚시시설의 계획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외 원 가 입

▲강대균씨 ▲김명래씨 ▲김사옥씨 ▲김영식씨 ▲김재원씨 ▲김창수씨(주식회사 화인주택 대표이사) ▲김한규씨(한국라이닝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형성씨 ▲나영옥씨(금성산업 대표) ▲노용기씨(주식회사 삼경기술용역단 대표이사) ▲박영보씨 ▲백근찬씨(경동빌딩관리사무소 소장) ▲서석호씨(동화종합건설 주식회사 부회장) ▲신봉주씨 ▲오충섭씨 ▲이장현씨 ▲이학주씨(한중약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윤

어업인 소득증대 등 4대 중점과제 확정

수산진흥종합대책 2004년까지 6조7천억원 투융자

해양수산부는 김대중대통령이 8월15일 발표한 8·15 국정과제에 대한 수산부분 후속조치로 △어업인 소득증대 △수산물 유통구조 개혁 △연대보증 채무부담 해소 △신지식어업인 육성과 정보화를 '4대 중점추진과제'로 확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 현재 1,680만원 수준인 어가소득을 2004년에

2,500만원 수준으로 증대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004년까지 3조원 가량의 수산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수산업의 획기적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통해 어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2004년까지 총 6조7,000억원을 투·융자하는 '수산진흥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방파제용 OPT 소파블록 개발

방파제 건설비용을 절감하고 효과적인 시공이 가능한 소파블록 제작 및 시공기술이 개발됐다.

해건개발은 그 동안 국내 방파제공사에 쓰이는 소파블록으로 지난 50년대 프랑스에서 개발된 TTP를 대체할 수 있는 OPT소파블록의 제작과 시공기술을 개발, 최근 건설신기술로 지정받았다.

해건개발은 "OPT는 방파제와 방파호안에 주로 사용되는 TTP모양을 근간으로 중추원통의 2곳에 각각 3개의 다리모양을 붙인 형태로 안정성과 경제성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형식의 구조시공이 용이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기존의 공법보다 30%가량 절감할 수 있으며 공사비도 20~40%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수리시험결과 안정성측면에서 충돌에 의한 파손이 발생하지 않고 계획단면에 모양대로 정확한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단면이 균등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 기존의 공법보다 2배이상 안정적이라는 설명이다.

종합해양관광단지 제주에 조성 통영 지방수산과학관 연내 건립

제주와 경남 통영지역에 대규모 종합해양관광지 및 지방해양수산과학관이 민자로 건설된다.

최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제주지역에 2,300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 각종 친수공간이 들어서는 12만8,000평 규모의 대규모 종합해양관광지를 조성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사업타당성용역 및 기본계획용역을 시행중인 제주종합 해양관광지조성을 위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주도 측과 협의해 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종합해양관광지 대상지역

으로는 서귀포 지역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1,100평 규모의 지방해양수산과학관을 비롯, 종합해양공원 등 각종 친수공간이 대거 들어 서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또 경남 통영지역 8만1,000평 부지에 400억원의 민자를 유치, 1,000평 규모의 지방해양수산과학관을 건립키로 하고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해양수산부는 용역결과와 용지매입이 마무리되는 대로 연내에 수산과학관 건립사업에 나설 방침이다.

어항청소선 소식

| 9월중 어항청소 계획 | | | 어항청소선 이용안내 | |
|-------------|-------------------------------|-------------------------|------------|---|
| 선 명 | 월 일 | 지 역 (항) | 선 장 | 연 락 처 |
| 어항 901호 | 8. 6~11 8.15~18 | 천수만 홍원 | 최동립 | (휴대폰) 011-247-5592 (호출기) 012-247-5592 |
| 어항 902호 | 8. 1~4 8.13~18 | 서방 서방 및 연안 | 김성용 | (휴대폰) 011-243-5590 (호출기) 012-953-5590 |
| 어항 903호 | 8. 6~11 8.15~16 8.27~30 | 독암, 마량 북동 청산 및 연안 | 조동식 | (휴대폰) 011-230-5591 (호출기) 012-953-5591 |
| 어항 904호 | 8. 6~11 8.13~18 | 미조, 물건 국동 | 박만성 | (휴대폰) 011-232-5596 (호출기) 012-952-5596 |
| 어항 905호 | 8. 6~11 8.15~18 | 능양, 삼덕 지세포 | 하용만 | (휴대폰) 011-247-5593 (호출기) 012-1166-1358 |
| 어항 906호 | 8. 1~4 8.13~17 8.28~30 | 직산 구계 읍천 | 김성훈 | (휴대폰) 011-247-5594 (호출기) 012-909-5594 |
| 어항 907호 | 8. 6~9 8.13~18 | 남해 사천진, 주문진 | 최일선 | (휴대폰) 011-243-5597 (호출기) 012-953-5597 |

바다환경보호
캠 페 인

바다 바다 바다
바다는 삶의 터전

오염된후 후회말고
청정수역 보전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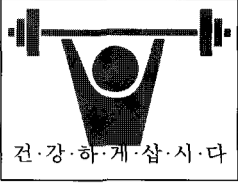
밝은 내일을 약속하는 - 수협공제

어려울 때, 가장 큰 빛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보험, 든든한 보험 - 수협공제



수협의 안전지대로 들어오십시오. 가장 든든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성인병은 과음 과식에서

확실히 음식물에 대한 원인은 무시무시하다. 전후 40년이 되고 있는데 그 전쟁 중에, 그리고 불탄 흔적이 있던 시대의 고된 배를 움켜쥐고 지냈던 날들의 기억은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것이다. 소위 전쟁 세대의 음식물에 대한 간절한 생각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남기는 것은 아깝다', '버리거나 하면 벌을 받는다'고 해서 좀 무리를 해서라도 먹어치웠다.

물론 지금 지구상의 여기저기에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버리는 것은 당치도 않지만, 그러나 '남기는 것은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음식을 많이 만드는 것에 대해 주의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유행하고 있는 입식 파티 같은 데서도 맛있는 음식을 수북하게 접시에 덜고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술을 마시며 가며 그것을 말끔히 먹어 치우니 상당한 칼로리를 섭취하는 것이다. 이것을 볼 때 인간에게는 '적당량을 먹는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다. 개나 고양이는 일정량을 먹으면 반드시 그릇에서 물러나기 때문에 '아, 이것이 적당량구나'하고 다음부터는 그 양만큼만 주문 남기지 않고 활아먹듯이 먹어 치운다. 그러면 비만하게 되지도 않으면서 극히 건강하게 된다. 그것이 인간에게는 왜 안되는 걸까?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성인병 중에는 과식·과음이 원인이 된 병이 상당히 많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부쩍 늘어난 것으로 고혈압증이 있다. 물론 그 자체는 병이 아니라, 혈액 중에 지방분이 많다고 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실은 이것이 습관성으로 바뀌어 수많은 성인병을 불러들이는 원인이 된다.

혈중에 존재하는 지방분이 많아졌을 경우, 혈청 부분에 카이로미크론이라는 크림 상태의 층이 나타난다. 낮은 증상의 고지혈증이라도 우유를 섞은 것 같은 탁한 층이 되는데, 그 끈적끈적한 혈액이 온몸을 도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뇌나 심장의 가는 혈관이나 간장 같은 장기 부분에서 '교통 장애'가 일어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 고지혈증의 원인은 대부분이 과식이므로 표준 체중×30칼로리라는 하루 필요량 이상의 칼로리를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지방이 많은 음식물은 피해야 한다. 육류를 먹지 않으면 안될 때는 기름기 있는 곳은 제외하고 먹도록 하고 당분은 조심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때 무엇보다도 실행해야 되는 것은 가족에게도 엄명해서 음식을 많이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언제라도 적당량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평화로운 마음을 충분히 느끼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어·항·교·실 漁港工事施工管理의 첫걸음

[34]

第3章 基礎工

3.4.4 잠수작업

어항공사는 수중에 구조물을 축조하는 비중이 높아 각종 수중공사가 시행되고 있다. 이들 수중공사중, 인간이 잠수기구를 몸에 걸치고 직접 시행하는 작업을 잠수작업이라 부르고 중노동으로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이다.

잠수작업은 잠수기구의 종류, 급기 방식 등으로 그림 3.4.11 제시된 바와 같이 분류된다.

잠수부선은 수중작업에 종사하는 잠수부를 작업현장까지 운반하고 각종 잠수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선박으로 송기설비, 기계설비, 안전설비와 통신기기 등을 구비하고 있다.

잠수부선은 5t 전후의 비교적 작은

배로 원치를 장비하고 있는 것이 많다. 잠수부의 공기 공급은 통상 공기압축기(에어 콤프레서)를 구동하여 공급하며, 안전을 위하여 예비탱크를 비치하고 있고, 여기에 부속하여 공기정정기(에어 크리너), 송기조절용 공기조(에어 탱크), 유량계 등을 구비하고 있다.

또 통신장치에 대하여는 선상 연락원과의 통화를 위한 수중전화기를 구비한 선박이나 스위치의 전환에 의하여 각 잠수부간의 연락이 취해지는 통신장치를 지닌 잠수부선도 있다. 그리고 또 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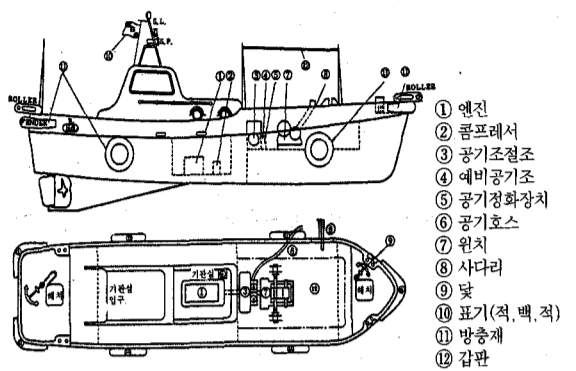


그림 3.4.12 잠수부선의 구조

수부선의 승무원들은 잠수부, 연락원 및 송기원의 3인 1조가 표준이다. 잠수부선의 구조는 그림 3.4.12, 헬멧식의 정량송기(개방형) 잠수기구는 그림 3.4.13에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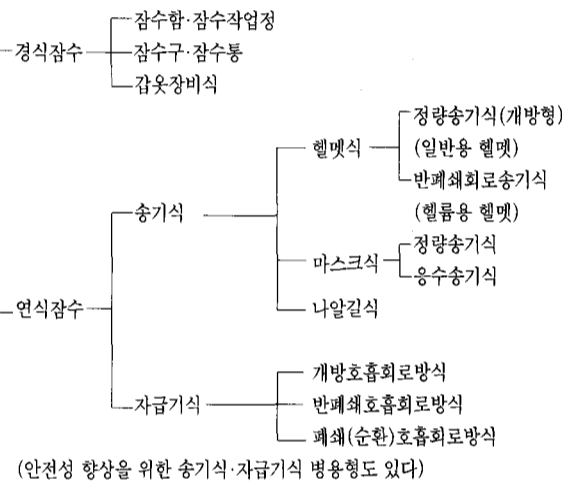


그림 3.4.11 잠수방식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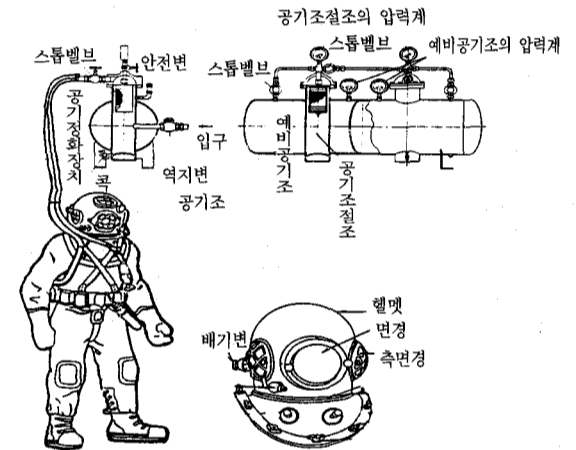


그림 3.4.13 헬멧식 잠수기구

제 2 권 국민운동

10. 직장 안에서의 기초매너

□ 자세 및 보행

○ 서있을 때는 어깨를 펴고, 턱을 당기며, 배를 끌어당겨야 함

○ 보행 시는 가슴이 몸을 앞으로 끌어당긴다는 기분으로 걷는 것이 좋음

□ 업무시 동작

○ 의자에 앉은 채 먼 곳에 있는 물건을 잡으려 하거나, 상반신만 뒤로 돌려 대화하는 것은 좋지 않음

○ 상대방을 바라볼 때는 비스듬히 바라봐야 함(올려보거나 내려보거나 결눈질은 안 좋음)

○ 어느 정도의 재스처는 필요하나 지나친 몸짓이나 상대방에 대한 손가락질은 피해야 함

○ 재채기와 하품은 수건이나 휴지를 대고 조용히 해야 함

□ 직장생활에 대한 6대 필수매너

○ 공·사 구별
- 사적전화가 걸려올 때는 용건만 간단히

- 봉투, 필기류, 컴퓨터도 공·사를 구별해야 함

- 부하직원에게 커피나 담배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곤란함

○ 시간엄수
- 인사고과에서는 뛰어난 능력과 시간엄수가 동등한 비중을 차지함. 즉,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신뢰받지 못함

○ 몸가짐

- 회사 등 집단에 속해 있다면 회사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존재이므로 당연히 몸가짐이 중요함

○ 정리정돈

- 책상, 캐비닛 등 사무용품이 개인전용이라고 해도 지저분하게 사용해서는 곤란함

○ 언어습관

- 아무리 친한 동료라도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됨

-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부하를 질책하는 상사는 자격미달임

○ 소개

- 자신이 신뢰하지도 않는 사람을 제3자에게 실상이상으로 포장해 소개한다면 자신의 신뢰성마저 떨어짐

- 소개순서는 자신과 가까운 사람, 혹은 회사 사람을 타인에게 먼저 소개시키며, 소개시킬 회사사람이 복수라면 하급자부터 상급자순으로 소개해야 함

- 직급이 같다면 나이가 어린순으로, 남녀일 경우 여성을 먼저 소개시킴

- 소개받거나 할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예의임

문화시민 생활윤리

글로벌 에티켓

11. 명함 매너

○ 명함은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먼저 건네는 것이 원칙임, 방문했을 때는 방문자가 먼저 건네야 함

○ 상대방이 바로 읽을 수 있도록 명함의 상하 위치를 조정한 뒤, 뒤 손으로 건네야 하며, "한국기업의 ○○○입니다"란 식으로 회사명과 본인 이름을 밝혀야 함

○ 명함은 항상 깨끗한 것을 준비해야 함

□ 명함 받는 사람이 주의해야 할 점

○ 받은 명함을 최소한 5초 정도 정독해야 함, 대화도중 상대방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큰 낭패임

○ 상대가 여럿일 경우 대화 도중 상당시간 동안 테이블 위에 명함들을 나열하는 것도 결코 실례가 아님

○ 상대방 명함을 손에 쥐고 주물럭거리거나, 받은 명함에 메모하는 것은 큰 실례임

12. 복장 매너

○ 단정한 복장의 3대 요소는 '청결' '폼위' '단정'임

○ 참고로 명함지갑, 수건,

휴대용 휴지, 수첩, 빗 정도는 사회인의 필수 휴대품 임

□ 남성

○ 와이셔츠
- 와이셔츠 차림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실례임

○ 바지
- 똑바로 섰을 때 바지와 구두 사이로 양말이 보인다면, 바지 길이가 짧은 것임

○ 넥타이
- 넥타이 끝이 허리띠의 버클을 감출 정도가 적절한 길이임

- 넥타이핀을 해서 단정함을 갖춰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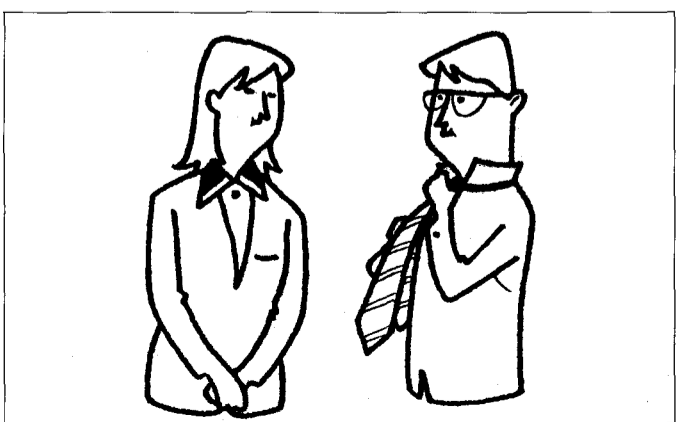
□ 여성

○ 머리
- 본인에게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머리모양이 좋음, 다만 일하는 데 방해가 되거나, 상대방에게 불결하다는 느낌을 줄 수 준이면 곤란함

○ 액세서리
- 전화 받기 불편할 정도로 큰 귀고리, 철렁철렁 소리가 나는 거대한 목걸이는 지양해야 함

○ 복장
- 치마는 인사할 때, 의자에 앉을 때, 계단 오를 때를 감안해 길이를 조정해야 함

○ 구두
- 늘 청결하게 닦는 것은 기본임, 더불어 구두 뒷부분과 축이 보기 흉할 정도로 닳았는지 살펴봐야 함



제 2 권 국민운동